

11/2/25

설교 제목: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육신이 되어 오시다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 장 1-25 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눅 3:23-38)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 1:2)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마 1:3)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 1:4)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마 1:5)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룯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마 1:6)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마 1:7)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마 1:8)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웃시야를 낳고

(마 1:9) 웃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마 1:10)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마 1:11)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마 1:12)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마 1:13)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아קים을 낳고 엘리아קים은 아소르를 낳고

(마 1:14)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마 1:15)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마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 1:17)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눅 2:1-7)

(마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 1: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품고자 하여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 1: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구약 말라기 이후 약 400 년간 침묵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선지자적인 계시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징계였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을 재정비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침묵하신 400 년 동안 조용히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400 년 동안 어떤 준비를 하셨을까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헬라(그리스) 제국 알렉산더 대왕로 하여금 바사(페르시아)를 정복하게 하여 헬레니즘 문화가 전역으로 퍼지게 하였으며,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로마로 하여금 패권을 잡게 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사방팔방 도로를 만들어 놓게 해서,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회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400 년 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사적 환경적인 변화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C 539 년 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BC 536 년 바사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귀환시키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여 성전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BC 330 년 헬라 제국(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를 정복합니다.

따라서 헬레니즘 문화가 전역에 확산되었고, 이스라엘에도 플라톤 사상과 스토아 철학 등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BC 323 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헬라 제국은 분열되었고,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4 세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헬레니즘 문화를 강요하고 유대교를 탄압하였습니다.

할례를 금했고 안식일 준수를 금하는 등 유대교 전통을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으며,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제단에 바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저항했고 마침내 BC 167 년-140 년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BC 146 년 마케도니아 아카이 동맹이 로마에 대항하다가 멸망하면서 헬라는 로마의 지배권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BC 64 년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동방을 재편하면서 유다도 로마의 지배권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로마가 임명한 헤롯 왕이 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다의 환심을 사기 위해 BC 25 년에서 AD 64 년에 걸쳐 화려한 성전을 재건합니다.

이 시기 유대교는 하나의 통일된 종교를 이루지 못하고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열심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제사장들과 귀족 계층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다른 유대 전통이나 구전 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나 천사 등등 영적 세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기득권 유지를 위해 로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이들은 AD 70 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라졌습니다.

바리새파는 모세 오경 뿐만 아니라 율법과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과 천사를 믿었고 사후 세계를 인정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하지 않았고 대신 회당 (synagogue)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외형과 형식을 중요시하여 예수님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서 살아남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세네파는 세속을 떠나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유대 사회와 단절하고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실천하며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사해 근처 쿰란 (Qumran)에서 경전을 기록했으며, 이 문서는 현대 성경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열심당은 로마 압제로부터 독립을 위해 로마에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폭력도 불사했습니다.
결국에는 로마군에 의해 진압되어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유대교 내에서 서로 다른 신앙과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지만, 모두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강력한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은 철저한 준비 끝에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사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들은대로 각자의 견지에서 각각 다른 독자들을 향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본문 마태 복음은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와 공생애를 같이 하며 보고 들은 것들을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는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합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 다윗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에 이릅니다.

이로써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성취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 11: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하 7: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삼하 7: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7)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다윗 왕조가 더 이상 왕위를 잇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계보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마 1:11)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마 1:12)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또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의 심오한 메시지를 나타냅니다.

당시 유다에서는 계보에 여성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여성 그것도 이방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룯.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그와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 대를 이은 여인이었고, 라합은 기생이었으며,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온 이방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과 간음하고 재혼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올린 것은 이것을 통해 남녀,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깨뜨려졌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성별 신분 등등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기록합니다.

(마 1:16)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보통 계보에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계보에는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부터 예수가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부 간의 육체적인 결합에 의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을 알고 가만히 꿇고자 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며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마 1: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마 1: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야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 1: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 1: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 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구약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의 탄생이 언약에 대한 성취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사야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의로운 자 요셉은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합니다.

(마 1: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마 1: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0 년의 침묵 동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 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야만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지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합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 프로젝트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 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멍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운지라 사탄 마귀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덤빕니다.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까지도 합세해 여기에도 구원이 있다 저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10 월 27 일부터 31 일까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는 WEA (World Evangelical Alliance) 서울 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내노라 하는 교회 지도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순복음 교회 이영훈 목사 등) 들이 주축이 되어 WEA 는 WCC 와는 다르다며 성도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승리하십시오!